

#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I)

## A Study on Normative Expectation of Emotional Process in Children's Textbooks of the Chosen Dynasty(II)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신양재

Dept.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Yangjai Shi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 분석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normative expectations of positive emotions such as happiness and pride in Korean culture by analyzing the children's textbooks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ocument analysis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Dongmongsensp', 'Gyukmongyogyul', 'Myungsimbogam', and 'Sohak', that were the textbooks for children's education and involved the ethics of individual life based on Confucianism. The analysis was focused on the antecedent events, emotional consequences, and emotional regulation in the emotional process of happiness and pride. According to the analysis, happiness was caused by the accomplishment of cultural tasks such as supporting parents, observing laws, being moderate, improving oneself with reading good books, and modeling good deeds, as well as parents' love, which had desirable consequences. Hence, the emotional regulation was to enhance happiness, but far as immoderate experience of happiness, the regulatory rule was expected to suppress it. Also, the antecedents of pride were those demonstrating to have power or occupying a high social position, and the consequences of pride led to self-destruction, and pride was therefore not allowed to be expressed. Consequently, happiness was enhanced because it motivated individuals to accomplish cultural tasks of interdependence, whereas pride was inhibited because it tended to disengage self from social connectedness.

Corresponding Author: Yangjai,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9 Sin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547-3952 E-mail: yangjaishin@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정서의 유발상황(antecedent events of emotion), 정서의 결과(emotional consequences),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정서의 억제(inhibition of emotion), 정서의 고양(enhancement of emotion)

## I. 서론

아동이 상황에 알맞게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성 발달(우수경·최기영, 2002; 이강이·성미영, 2003; 임연진, 2002; 황혜정·김경희, 1999), 자아존중감 발달(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 사회적 적응(박혜경·박성연, 2002; 정현희, 2002)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Denham(1998)은 부모를 비롯한 주요 사회화 담당자들이 아동에게 자신들의 정서를 보여주거나, 아동의 정서에 반응을 보이거나, 정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문화로부터 수용할만한 정서능력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 능력은 주관적 개인의 상태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련성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Campos, Campos, & Barrett, 1989),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적응적 의의를 갖는다(Barett, 1998; Campos, Campos & Barrett, 1989; Frijda & Mesquita, 1998; Jenkins & Ball, 2000; Oatley, 2000)고 한다. Super와 Harkness(1998)도 정서의 사회화는 심리적, 문화적 과정으로서, 정서표현의 요소는 인간으로서 보편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문화에 의해서 조직되고, 행해지고, 조절된다고 하였다. 예를 든다면, 미소에 이르는 생리적 기제는 근본적으로는 보편적이거나, 미소의 기회나 맥락은 문화에 따라 다양진다고 하였다.

정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Frijda와 Mesquita(1998)은 정서는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선행상황의 지각, 그에 대한 평가,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문화적 기대나 규범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정서과정의 시발이 되는 상황의 지각과 해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기대나 상황정의에 의해서 특정 정서적 의미를 갖게 되어, 문화에

따른 고유한 정서적 특성에 기여한다고 한다(Mesquita & Frijda, 1992). 또한 문화마다 갖는 정서 표현 규칙(Lutz, 1987)이나 정서경험에 대한 규범(Eid & Diener, 2001)이 달라서 이들 규칙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할지를 규정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Ifaluk에 대한 Lutz(1987)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정서표현규칙은 행복감의 표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행복의 정서는 의무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복의 정서 표현을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Eid와 Diener는 정서 경험의 규범에 대한 연구(2001)에서 서구 문화에서는 자만심과 같은 긍정적 자의식 정서를, 아시아 문화에서는 수치심이나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자의식 정서를 보다 중요시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정서 행동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는 보편적 정서에 대한 조절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서조절은 정서의 모든 구성요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을 회피 혹은 추구하기도 하며, 선행 상황을 특정 정서가 일어나지 않을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행위 경향을 억압하거나 감소시키기도 하여, 외부적 표출뿐만 아니라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Eid & Diener, 2001; Frijda & Mesquita, 1998; Mesquita & Frijda, 1992).

한편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에 따른 정서 차이를 자아체계의 개념으로서 설명하였다. 그들은 정서경험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자아와 타자 혹은 이들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므로 정서 경험은 자아체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정서를 자아-중심적 정서(ego-focused emotion)와 타자-중심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로 구분하여, 전자는 서구와 같은 독립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 후자는 아시아와

같은 상호의존적 자아체계의 문화에서 빈번하게 경험되는 정서의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즉 그들에 의하면 자아-중심적 정서는 분노, 좌절, 자만심 등으로, 이런 정서의 표현이나 경험은 자기-규정적이거나 내적 속성을 더 강조하게 하게 되므로 독립적 자아체계를 유지 혹은 강화시켜 주는 반면, 타자-중심적 정서는 동정, 동료의식, 수치심 등으로, 협동적 사회적 행동에 이르게 하여 상호의존적 자아체계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Matsumoto(2000)도 정서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고려하여 분노나 자만심과 같은 정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이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촉진시키므로 사회-분리적 정서(socially-disengaged emotion)로, 수치심이나 죄의식과 같은 정서는 상호간의 유대를 촉진하거나 회복시키므로 사회-융합적 정서(socially-engaged emotion)라고 분류하여, 전자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후자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더 중요하고 빈번한 정서로 보았다.

이러한 정서의 문화적 차이는 아동기의 사회화 경험에서 개인에게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자녀를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내면화된 정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보상을 줌으로써, 자녀가 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정서적 반응을 추구, 혹은 회피하는 것을 학습시키며, 그 정서에 대한 특정한 평가 방식을 발달시키도록 하여, 문화적 기대에 적합한 정서 표현이나 경험을 하도록 자녀의 정서를 규제하게 된다(Saarni, 1999)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서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특성 안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정서의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서사회화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홍희영·이영, 2003; 김정민·유안진, 2003), 정서이해에 대한 연구(이강이·성미영, 2003; 이해련·최보가, 2002), 그리고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강희연·강문희, 1999; 박혜경·박성연, 2002; 이지선·유안진, 1999; 임연진, 2002; 임희수·박성연, 2002)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이 Salovey와 Mayer(1996)의 정서지능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박영애·최영희·박인진, 2000; 우수경·최기영, 2002; 이주리, 2002; 이지선·정옥분, 2002; 정현희, 2002; 황혜정·김경희, 1999). 이들 대부분 연구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한 측면인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거나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우리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경우는 극히 소수(우남희, 1999)이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도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문미옥·류철선, 2000; 신양재, 2004a; 우남희, 1999; 우영희, 1989; 유점숙, 1992; 이정덕·송순, 1993) 전통사회의 아동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서에 대한 문화적 기대의 일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는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정서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행복감, 그리고 자만심 등의 기분 좋은 각성상태를 유발하는 정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복감과 자만심 정서의 선행 상황, 정서의 결과, 그리고 정서조절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행복감과 자만심의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상황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둘째, 행복감과 자만심의 정서가 갖는 결과는 무엇인가? 셋째, 행복감과 자만심의 정서에 대한 조절 규칙은 무엇인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특정 상황의 정서적 의미와, 그리고 이들 정서에 대한 바람직성의 평가 및 조절 규칙에 대한 문화적 기대의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아동의 정서사회화를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서상태와 인지과정이 연관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Fiedler & Bless, 2000)로 볼 때, 정서과정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에 나타나는 우리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문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조선시대에 아동교육을 위해 사용되던 문헌인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을 분석하였다.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학자인 박 세무(朴世茂: 1487-1567)가 지은 것으로 서당에서 「천자문」을 끝낸 뒤에 배우던 아동교육용 교재(한국사 대사전, 1992)로서, 내용은 오륜(五倫)의 도리를 소개한 다음 총론(總論)을 붙였으며 뒤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술하고 있다. 특히 「동몽선습」은 아동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서였다는 의의가 있다(성백효, 1992). 본 연구에서는 춘방장판(春坊藏板)을 대본으로 하여 국역(國譯)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낸 것을 분석하였다. 「격몽요결」은 1577년 이이(李珥)가 해주(海州)에서 강학(講學)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배우는 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4개 장(章)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예절에 관한 내용의 6개 장(章)으로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울곡집(栗谷集)을 국역한 전통문화연구회의 「격몽요결」을 분석하였다. 「명심보감」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격언을 각종 서적에서 발췌하여 만든 책으로 저자와 저술연대가 확실치 않아 고려말 공민왕 때의 추적(秋適)이라는 설과 명초(明初) 범립본(范立本)이 지은 것이라는 주장(성백효, 1992)이 있다. 「명심보감」은 좋은 격언들이 모여 있고 문장이 평이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널리 읽혀진 초학서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내용은 총 20편으로 되어 있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초략본(抄略本)을 대본으로 하여 청주본(淸州本)을 대조하여 국역한 전통문화연

구회의 「명심보감」을 분석하였다. 「소학」은 주희(朱熹)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스승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으로 1187년에 완성되었고,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부터 필독서가 되어 성균관, 학당, 서원, 서당 등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중요시하였다(손인수, 1993)고 한다. 내용은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의 내편과 가언(嘉言), 선행(善行)의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학은 이이(李珥)가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소학의 각종 주석서를 모아서 정수만을 뽑아 만든 「소학집주」(小學集註)를 대상

- 1) 각 장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현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우야 한다는 입지장(立志章),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혁구습장(革舊習章), 올바른 몸가짐을 강조한 지신장(持身章), 독서하는 방법인 독서장(讀書章)의 4장과, 부모를 섬기는 도리인 사친장(事親章), 상례(喪禮)를 논한 상제장(喪制章), 제례(祭禮)를 논한 제례장(祭禮章),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인 거가장(居家章), 사람을 대하는 도리인 접인장(接人章), 처세의 원칙인 처세장(處世章) 등의 6 장으로 되어 있고, 제례의 부연설명인 제의초(祭儀鈔)를 뒤에 붙였다.
- 2) 내용은 총 20편으로 선행에 관한 계선편(繼善篇), 천명(天命)에 관한 글인 천명편(天命篇), 운명에 순응함에 관한 순명편(順命篇), 효행에 관한 효행편(孝行篇), 몸을 바르게 함에 관한 정기편(正己篇), 분수를 편안히 함에 관한 안분편(安分篇), 마음 보존에 관한 존심편(存心篇), 성품을 경계하는 것에 관한 계성편(戒性篇), 배움을 부지런히 하는 것에 관한 근학편(勤學篇),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훈자편(訓子篇), 마음을 살피는 것에 관한 성심편(省心篇) 상과 하, 가르침을 세우는 것에 관한 입교편(立敎篇), 다스림에 관한 치정편(治政篇),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치가편(治家篇), 의리에 관한 안의편(安義篇), 예에 관한 준례편(遵禮篇), 말조심에 관한 언어편(言語篇), 벗 사귀에 관한 교우편(交友篇), 부인 행실에 관한 부행편(婦行篇) 등의 20편으로 되어 있다.
- 3) 구체적으로는 입교는 교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며, 명륜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의 윤리에 대한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계고는 춘추시대(春秋時代) 이전의 사료에서 입교, 명륜, 경신에 부합되는 실례(實例)를 들고 있다. 또한 가언은 한대(漢代) 이후 명현의 격언과 명가의 가훈을 모은 것이고, 선행은 한대 이후의 훌륭한 행실을 모은 것으로, 가언과 선행 역시 입교, 명륜, 경신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으로 하였고,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선정전훈의본(宣政殿訓義本)을 대본으로 국역한 것을 분석하였다.

## 2. 분석방법

이러한 분석문헌을 중심으로 Denham(1998)과 Lewis(1999)가 제시한 분류를 참고하여 기본정서인 행복감, 분노, 슬픔, 두려움과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 자만심 등을 분석할 정서의 종류로 삼았다. 기본 정서는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로 기능적으로 동등한 상황에서는 성인과 거의 같게 느끼는 정서(Denham, 1998)이고, 자의식 정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자신을 의식하고,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을 의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Lewis, 1999; Denham, 1998)이다. 또한 정서의 평가 차원에서 불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와 기분 좋은 상태를 유발하는 긍정적 정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Frijda, 1993; Roseman, Antoniou, & Jose, 1996; Scherer, 1999; Smith & Ellsworth, 1985),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는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기분 좋은 상태를 유발하는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과 자만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정서의 평가적 특성에 의하면, 행복감은 기분 좋고,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고(Smith & Ellsworth, 1985), 높은 목표 성취나 대응가능성을 갖으며(Mastumoto, 2000), 상황이 동기와 일치한다(Roseman, Antoniou, & Jose, 1996)는 평가에 의해서 야기되는 정서이다. 자만심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롭게 여겨지는 결과의 원인이 되거나,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자아 평가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Denham, 1998; Tangney, 1999)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개념적 기초로 하여 행복감을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부족감이 없는 상태로 보았고, 분석문헌에서 이와 유사한 정서상태를 표현한 喜, 樂, 歡 등<sup>4)</sup>이 포함된 대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자만심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 또는 능력을 믿어 자랑하고 거만하게 구는 상태로 보았고, 이와

유사한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慢, 驕, 敖 등<sup>5)</sup>이 포함된 대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대목을 선행상황 측면, 정서의 결과 측면, 조절 측면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선행상황(antecedent events)은 특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지각과정을 말하며(Mesquita & Frijda, 1992), 정서의 결과는 특정 정서를 표현하거나 경험함으로써 초래하는 효과(Frijda & Mesquita, 1998)를 말한다. 또한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이란 전망되는 효과에 따라 특정 정서를 억제 혹은 고양시키는 것으로서, 즉 정서 표출이 야기할 불리한 효과에 대한 전망 때문에 어떤 정서를 억제하거나 혹은 예측되는 유리한 효과 때문에 정서를 고양시키는 것(Frijda & Mesquita, 1998)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추출한 대목들을 각 정서별로 선행상황, 정서의 효과, 조절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선행상황은 분석 정서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면서 연관성을 가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정서의 효과는 분석 정서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서 조절은 문헌에서 추출된 대목에 나타난 권장 혹은 금지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권장 표현은 조절규칙 중에서 고양으로 보았고, 금지 표현은 억제의 규칙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소학 명륜

4) 한자의 자해적 풀이를 보면 喜는 기쁘다, 기뻐하다, 즐겁다, 즐거워하다로 되어 있고(한한대사전, 1982: 350), 樂은 즐기다, 즐거움을 느끼다, 즐겁다로 되어 있으며(한한대사전, 1982: 890), 歡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쁘게 하다로 되어있다(한한대사전, 1982: 913). 그리고 기쁘다의 국어사전적 풀이는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다(국어대사전, 1982: 529)이고, 즐겁다는 마음이나 관능(官能)이 만족스럽고 유쾌하다(국어대사전, 1982: 3439)로 되어 있다.

5) 분석에 사용된 한자의 자해로 慢는 거만하다, 오만하다(한한대사전, 1982: 667), 驕는 교만하다, 스스로 잘난 체하다(한한대사전, 1982: 2110), 敖는 거만하다, 뽐내다(한한대사전, 763)이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거만은 겸손하지 않고 뽐내며, 잘난체하고 남을 업신여김(국어대사전, 1982: 131), 오만은 교만하여 사람을 업신여김(국어대사전, 1982: 2589), 교만은 전제하고 뽐내며 방자함으로 되어 있다.

(明倫) 34장에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다'의 내용에서 자만심의 선행상황은 직위가 높은 상황이고, 정서의 효과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았고, 정서조절은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감과 자만심 정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세 측면으로 분류하여, 이것을 근거로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기대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로 각 정서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서의 바람직성의 규범을 알아보았고, 셋째로 각 정서에 대해 조절 규칙으로 고양과 억제 중에서 어떤 조절을 기대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절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제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 III.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 분석

#### 1. 행복감에 대한 규범적 기대

분석문헌에서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추출된 대목 중에서 ④, ⑤, ⑩, ⑭는 정서의 유발상황에 대한 제시 없이 정서조절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대목에는 행복감 정서의 선행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중 ①, ②, ⑬은 부모봉양의 효과 관련된 상황이고, ③, ⑪, ⑮는 대인관계, 그리고 ⑥, ⑦, ⑧, ⑨는 일상행동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에는 '부모가 사랑해 주시거든 기뻐하고 잊지 않으며,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지극히 해야 한다'(父母愛之 喜而不忘...養則致其樂...)라고 하여 행복감의 선행상황으로

6) 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표 1> 행복감 정서과정 분석

출 처	내 용	유발 상황	정서의 결과	조절규칙(방법)
동몽선습(총론)	① 父母愛之 喜而不忘 ...養則致其樂...	父母愛 (父母養)		권장(不忘) 권장(致其樂)
명심보감(효행)	② 孝子之事親也...養則致其樂...	(父母養)		권장(致其樂)
명심보감(정기)	③ 聞人之謗 未嘗怒 聞人之譽 未嘗喜 聞人之惡 未嘗和 聞人之善 則就和而之 又從而喜之...	聞人之譽 聞人之善		억제 권장
명심보감(정기)	④ 孫真人養生銘云 ...勿使悲歡極...			억제(勿使悲歡極)
명심보감(정기)	⑤ 蔡伯喈曰 喜怒 在心...不可不慎 ...			억제(在沁不可不慎)
명심보감(안분)	⑥ 景行錄曰 知足可樂...	知足		권장
명심보감(안분)	⑦ 知足者 貧賤亦樂...	知足		권장
명심보감(존심)	⑧ 懼法朝朝樂...	懼法		권장
명심보감(훈자)	⑨ 至樂 莫如讀書...	讀書		권장(至樂)
명심보감(성심 上)	⑩ ...甚喜必甚憂...		必甚憂	억제(甚喜)
명심보감(성심 下)	⑪ ...樂人之善...	人之善		권장
명심보감(성심 下)	⑫ 一派青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收 後人收得莫歡喜 更有收人在後頭	前人田土後人收		억제
소 학(명륜 21)	⑬ ...父母愛之 喜而弗忘 ...	父母愛		권장(弗忘)
소 학(경신 2)	⑭ 歡不可長... 樂不可極			억제(不可極)
소 학(가언 62)	⑮ 仲由 喜聞過 令名 無窮焉 今人 有過 不喜人規...	聞過	令名 無窮焉	권장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경우와 부모 봉양에 대하여 각각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서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제시는 없으나, 비슷한 내용의 ②로 미루어 볼 때 효행(孝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서 경험을 권장하고 있다. ②도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孝子之事親也...養則致其樂...)라 하여 ①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⑬ 역시 '부모가 사랑하시거든 기뻐하고 잊지 말라'(...父母愛之 喜而弗忘...)고 하여, 기쁨 정서가 일어나는 선행상황으로 부모가 사랑을 주는 상황을 제시하였고, 이런 경우의 기쁨은 권장되며 잊지 말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의 행복감 정서가 효에 대한 의무 수행에 동반되길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③은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며, 남의 선행을 듣거든 나아가 어울리고 따라하며 기뻐하여야 한다'(聞人之謬 未嘗怒 聞人之譽 未嘗喜 聞人之惡 未嘗和 聞人之善 則就而和之 又從而喜之...)라 하여, 기쁨에 대한 억제와 권장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쁨의 선행상황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칭찬을 하는 경우와 남의 선행을 따라 하는 경우로서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쁨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대한 기쁨은 바람직하다고 보아 고양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⑪은 '남의 선한 것을 즐거워하라'(...樂人之善...)고 하여 남의 선행에 대하여 긍정적 정서를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 대한 즐거움 정서는 권장되고 있다. 또한 ⑮는 '중유(仲由)는 과실을 듣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명예가 무궁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과실이 있으면 남의 타일러움을 기뻐하지 않는다'(仲由 喜聞過 命名 無窮焉 今人 有過 不喜人規...)라고 하여 자신의 과실을 듣는 상황에 기쁨 정서를 동반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서의 결과로 명예가 따른다고 보아, 기쁨 정서의 효과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으며, 정서 경험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나의 과실을 듣거나, 남의 선행에 대해서는 행복감 정서를 권장하나, 나에게 대한 칭찬의 경우에는 행복감 정서의 역제를 기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⑥에서 ⑨까지는 일상행동에서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즉 ⑥은 '경행록에 말하길,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수 있다'(景行錄曰 知足可樂...)라고 되어 있고, ⑦에서는 '만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고 천하여도 또한 즐겁다'(知足者 貧賤亦樂...)라 하여 만족함을 안다는 것에는 즐거움이 동반됨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⑧은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다'(懼法 朝朝樂...)라 하고, ⑨에서는 '지극히 즐거운 것은 책을 읽는 것 만한 것이 없다'(至樂 莫如讀書...)라 하여, 법 준수와 독서는 즐거움이 따를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만족함을 알고, 법을 지키고, 독서를 하는 상황에는 즐거움이 유발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정서의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권장하고 있다. 그밖에 ⑩는 '한 줄기 푸른 산에 경치가 그윽하더니 앞사람이 가꾸던 밭과 토지를 뒤사람이 거두는데, 뒤 사람은 거두어 얻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다시 거둔 사람이 뒷머리에 있다'(一派 靑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收 後人收得莫歡喜 更有收人在後頭)라고 하여, 전답을 얻음을 기쁨이 유발되는 선행상황으로 보며, 이 경우의 기쁨은 부정적으로 보아 억제의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④, ⑤, ⑩, ⑭에서는 주로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어, 행복감에 대한 적당한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④는 '손진인 양생명에 말하길,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孫真人養生銘云...勿使悲歡極...)라 하여 특정 선행상황에 대한 제시는 없으나 정도가 심한 기쁨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⑤도 '채백개가 말하길,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蔡伯喈曰 喜怒 在心...不可不慎...)고 하여 기쁨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기쁨의 원인이 자신 내부에 있는 것이므로 삼갈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⑩에서는 ④나 ⑤와 마찬가지로 기쁨에 대한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즉 ⑩은 '심히 기뻐하면 반드시 심히 근심하게 된다' (...甚喜必甚憂...)고 하여 정도가 심한 기쁨의 결과로서 근심이 초래된다고 보아, 정도에서 벗어난 기쁨의 경험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⑭에서도 나타나, '즐거움을 극도로 해서는 안된다' (敖不可長...樂不可極)라고 하여 ④, ⑤, ⑩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①, ②, ⑬ 등에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행복감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거나, 부모님을 봉양하는 상황에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③, ⑪, ⑮ 등에서는 나의 과실을 듣거나 남의 선행에 기쁨 정서를 가질 것을 기대하였으며, ⑥, ⑦, ⑧, ⑨ 등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상황, 법을 지키는 상황, 독서 등에는 즐거움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행복감을 부정적으로 보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으로는 ③에서 남이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 ⑫에서 전답을 얻는 경우이다. 그리고 행복감에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아 ④, ⑤, ⑩, ⑭ 등에서는 지나친 행복감에 대한 조절을 기대하

고 있다.

## 2. 자만심에 대한 규범적 기대

본 연구의 분석문헌에서 자만심과 관련이 있는 대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대목에서 자만심에 대한 정서조절로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은 '과실은 경솔하고 자만한테서 생긴다' (...過生於輕慢...)고 하여 자만심의 결과로서 과실이 초래된다고 보아, 자만심의 정서적 효과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억제의 조절을 기대하고 있다. ②는 '권세가 있어도 부리기를 다하지 말아야 한다.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인생의 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종말이 없는 경우가 많다' (有勢莫使盡 勢盡冤相逢...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고 하여 자만심은 권세가 있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만심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③도 '자만하여 힘을 믿지

<표 2> 자만심 정서과정 분석

출 처	내 용	유발 상황	정서의 결과	조절규칙(방법)
명심보감(정기)	① ...過生於輕慢... 戒心 莫自貪嘖		過生	억제
명심보감(성심 上)	② 有勢莫使盡 勢盡冤相逢... 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	有勢		억제
소 학(입교 9)	③ ...毋驕恃力	恃力		억제
소 학(명륜 34)	④ 在上不驕 高而不危...	在上	高而不危	억제
소 학(명륜 36)	⑤ ...事親者 居上不驕 居上而驕則亡...	居上	亡	억제
소 학(경신 2)	⑥ 敖不可長 樂不可極			억제
소 학(경신 8)	⑦ ...動容貌 斯遠暴慢矣...			억제
소 학(계고 45)	⑧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諄者 鮮矣	寵		억제
소 학(가언 1)	⑨ ...教小兒 先要安詳恭敬 今世 學不講 男女從幼便驕惰壞了 到長益凶狠 只爲未嘗 爲子弟之事		到長益凶狠	억제
소 학(가언 10)	⑩ ...怡怡奉親長 不敢生驕易 戰戰兢兢 造次必於是...			억제
소 학(가언 80)	⑪ 素驕奢者 欲其觀古人之恭儉節用 卑以自牧 禮爲教本 敬者身基 瞿然自失 斂容抑志也			억제(恭儉 卑以自牧 禮爲教本 敬者身基)



말아야 한다' (…毋驕恃力)는 내용에서 자만심은 자신의 힘을 믿는 상황에서 유발되며, 억제 조절이 기대됨을 알 수 있다. ④에서는 '위에 있으면서 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다' (在上不驕 高而不危…)라고 하여 자만심은 직위가 높은 상황에서 유발되며, 자만심의 결과는 나를 위태롭게 만듦으로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⑤는 '부모를 섬기는 자는 위에 거해서는 자만하지 않으며, 위에 거하면서 자만하면 망한다' (…事親者 居上不驕 居上而驕則亡…)고 하여, ④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만심은 직위가 높은 상황에서 유발되며, 자만심의 결과는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지므로, 억제 규칙이 나타났다. ⑥에서도 '자만함을 키워서는 안된다' (敎不可長)고 하여 억제 규칙이 기대되고 있었다. 또한 ⑦에서도 '용모에는 포악함과 자만함을 멀리하여야 한다' (…動容貌 斯遠暴慢矣…)고 하여 자만심의 표현에 대한 금지가 나타나 있다. ⑧에서도 '충애를 받으면서도 자만하지 않으며, 자만하면서도 능히 낮추며, 낮추면서도 유감을 갖지 않으며, 유감이 있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자는 적다' (夫寵而不驕 驕而能降 降而不憾 憾而能疹者 鮮矣)라고 하여 자만심은 충애를 받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자만심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만심의 경험이나 표현 모두에 억제의 조절 규칙이 나타났다.

한편 ⑨에서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먼저 안정되고 상세하며 공손하고 공경함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배움을 익히게 하지 않아, 남녀가 어릴 때부터 자만하고 나태함으로 파괴되어, 장성함에 이르면 더욱 포악하고 사나워지니, 이는 다만 일찍이 자제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敎小兒 先要安詳恭敬 今世 學不講 男女從幼 便驕惰壞了 到長益凶狠 只爲未嘗 爲子弟之事)라 하여, 자만심의 결과는 포악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으로 보아, 자만심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어려서부터 억제하여 자만심을 조절하길 기대하고 있다. ⑩은 '기쁘게 부모와 어른을 받들어 감히 자만하거나 함부로 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하며 두려워하

고 다시 조심하여 짧은 순간에도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한다' (…怡怡奉親長 不敢生驕易 戰戰復兢兢 造次必於是…)라 하여, 자만심에 대한 억제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부모, 어른께는 더욱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⑪은 '본래 자만하고 사치한 자는 선인들이 공손하고 겸손하여 씬을 절약하며, 몸을 낮추며, 예로써 가르침의 근본을 삼으며, 공경으로써 몸의 터전을 삼은 것을 보고, 놀라 자신감을 잃고 용모를 거두고 뜻을 억제하고자 해야 한다' (素驕奢者 欲其觀古人之恭儉節用 卑以自牧 禮爲教本 敬者身基 瞿然自失 斂容抑志也)고 하여, 자만심을 조절하여 억제할 것을 기대하며, 그 방법으로는 공손하고 겸손하고, 몸을 낮추며, 예와 공경을 몸가짐의 근본으로 삼아 조절하여 다스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만심은 힘이나 권세가 있을 때, 직위가 높을 때, 충애를 받을 때에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만심의 결과는 과실을 초래하거나, 자신을 위태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사나워지고 흉포해짐을 초래하므로 이 정서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만심의 조절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억제의 규칙이 기대되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것은 전술된 바와 같이 정서의 생리적 기제는 보편적이지만, 특정 정서를 유발하게 하는 상황지각이나, 그에 따르는 인지적 평가과정, 그리고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규칙은 문화의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은 이러한 문화의 정서 규칙을 배우고 그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사회화를 문화적 과정이라는 관점으로부터, 그 기초 작업으로서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을 분석하였다.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등

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분석(신양재, 2004b)에 이어, 본고에서는 긍정적 정서로서 행복감과 자만심을 분석하였다. 분석문헌은 동몽선습, 격몽요결, 명심보감, 소학 등으로,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수신(修身)에 관한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서과정의 규범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행복감과 자만심에 대한 정서의 유발상황, 효과, 조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행복감이 유발되는 선행상황으로는 부모님의 애정, 부모님에 대한 봉양 등의 효과 관련된 상황, 남의 선행과 그를 따라 행하는 상황, 일상행동에서 만족할 줄 아는 상황, 법 준수, 독서 등 학문에 힘쓰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이때의 행복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남이 자신을 칭찬하는 경우나 재화를 얻는 경우에 유발되는 행복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억제할 것을 기대하였다.

Mastumoto(2000)는 행복감은 누구나 경험하는 정서이지만, 행복감의 조건이나 부여된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문화적 과업을 성취했을 때 이 행복감은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독립적 자아체계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독립성의 과업을 성공했을 경우, 상호의존적인 자아체계의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상호의존성의 과업을 성공했을 경우에 행복감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행복감 정서의 조건이나 사회적 함의는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며, 문화의 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 나타난 행복감은 개인의 만족이나 욕구를 달성하기보다는 부모와 유의미한 타자와의 유대 존속이나 법 준수 등과 같은 집단의 상호의존성에 기여하는 과업을 수행했을 때에 수반되어야 할 정서로서 보고 있어, 집단주의 문화의 의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복감은 강도에 따라 기대되는 조절 규칙이 달라지는데, 강도가 지나친 행복감에는 적당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정서 경험을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서의 증용

이나 억제를 가치있게 보는 유교의 일반적 정서규범이 반영된 것(Eid & Diener, 2001)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자만심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자만심은 힘이나 권세가 있거나, 직위가 높은 상황에서 갖게 되는 정서로 보며, 이 정서의 결과는 과실을 초래하고, 자신을 망치거나 위태롭게 하고, 사나워지고 흥포해지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 억제의 조절규칙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자만심에 대해 이처럼 억제적 조절 규칙이 강하게 기대되는 것은 자만심이 갖는 기능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자만심은 사회-조절 기능에서는 지배나 우월성을 나타내며, 내적 조절 기능에서는 객체와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Barrett, 1998)고 한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자기우월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자신의 욕구, 목적, 소망, 능력 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만족되거나 확인되었을 때 경험되기 때문에, 이 정서의 표현이나 경험은 자기-독립적이거나 내적 속성을 더 강조하게 하는 자아-중심적(Markus & Kitayama, 1991)이고 사회-분리적 경향(Mastumoto, 2000)을 촉진시켜 집단주의 문화에 위협이 되므로 억제의 조절규칙이 기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만심에 대해 Lewis(1992)는 자신의 성공을 행위나 행동에 귀인시킬 때 경험되는 유형과, 성공을 전체적인 자신에게 귀인시키는 유형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보았고, Tangney도 자만심을 행동(behavior)에 대한 자만심과 자신(self)에 대한 자만심으로 구별 할 수 있으며 후자의 자만심은 역기능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Tangney, 1999). 본 연구는 Lewis나 Tangney가 말한 유형 중에서 자아에 대한 자만심이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추후 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행복감의 긍정적 정서는 집단의 유대나 조화를 강화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상호의존성의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행복감 정서는 보편적 정서이지만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상황

은 상당 부분이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다 (Mastumoto, 2000)를 앞선 논의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 행복감 정서에 대해 무한정 권장하지 않고 중용의 조절규칙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석문헌들이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성리학에서, 특히 사단칠정(四端七情)<sup>7)</sup>의 개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본연지성(本然之性)에서 理가 주로 발하여 사단(四端)이 생기고, 理가 氣에 눌러서 나타나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발하여 칠정(七情)이 생기는데 이 칠정이 중절(中節)할 때에 사단과 일치할 수 있다<sup>8)</sup>(정순목, 1983: 26)고 보아, 중화(中和)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분석에 나타난 특징적 결과의 하나는 정서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것이다. 즉 정서의 평가차원에 내재한 쾌(pleasure)원리에 의한 정서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문화에서 규정하는 바람직성의 규범으로 인하여 정서경험에서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가 항상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은 아니며, 부정적 정서도 역시 그렇다. 이는 본 분석에서도 나타나, 긍정적 정서인 자만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아 억제하여야 할 정서로서 보지만,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은 바람직하게 취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에 따른 자아체계의 차이가 정서경험의 규범에 영향을 준다는 Eid 와 Diener(2001)의 연구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체계를 가져, 자신의 열망이나 기대에 관련되는 정보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보다는 긍정적 정보에 집중하게 하는 조절기제(promotion-focused regulation)가 지배적이어서 긍정적 정서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그러한 정서 경험에의 압력이 강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는 상호의존적 자아체계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정보에 집중하게 하는 조절기제(prevention-focused regulation)가 지배적이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이 잘못이거나 불충분할 때 유발되는 수치심이나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다 중요시하고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는, 긍정적 정서라 하여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부정적 정서라 하여도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규범은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반영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서를 보다 강조하고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정서는 억누르도록 사회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정서유발의 선행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이 지니는 정서적 의미를 일부 규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 분노에 대한 분석에서 사회 도덕적 위반,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 강조되는 도덕 원리나 사회관습, 공적 기준의 위반 상황은 분노 정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부모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무나 기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두려움 정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연구에서 효와 같이 상호의존적 유대를 유지하는 의무에 힘쓰는 상황은 행복감 정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분석에서 확인된 상황의 중심적 특성은 Markus와 Kiatyama(1991), Mastumoto(2000), Eid 와 Diener(2001) 등의 논의처럼 정서가 문화의 상호의존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정서 경험에 대한 규범성, 즉 어떤 정서의 경험이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화적 규정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선 연구에서 분노 정서와 이 연구에서의 자만심 정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로 보고 있으며, 두

7) 사단(四端)은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한다. 칠정(七情)은 일곱가지 감정 희(喜), 노(怒), 애(哀), 낙(樂), 애(愛), 오(惡), 욕(欲)을 말한다.

8)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사단, 칠정이 모두 氣의 發이고, 이때의 理는 그것을 주재하는 것으로 理發은 없고 氣發이 있을 뿐이어서 칠정만이 있는 것으로 中節에 의해서 사단과 칠정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순목, 1983: 27).

려움 정서나 수치심 정서는 중요시여기고 바람직하게 여겼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것과 같이 정서에 내재한 쾌의 원리에 의한 긍정성, 부정성이 문화의 기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Fiedler와 Bless(2000)의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상태는 이용 가능한 정보 이상으로 새로운 정보 추론하기, 생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인지의 조절을 강화시키는 반면, 부정적 정서 상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동화 기능에 기여한다고 하여 인지작용과 정서상태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서와 인지간의 관계에서 볼 때, 두려움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생산적 사고나 창의적 활동보다는 정보를 보유하는 사고 작용이 보다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말 잘 듣고 순종적이길 바라는 부모의 기대나,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동적인 학습자와, 제시하는 정보에 집중하여 그것을 잘 보유하길 바라는 교사의 기대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정서 특성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분석을 통해서 정서 조절과 관련된 규칙과 방법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선 연구에서 분노와 자만심 정서는 억제의 조절 규칙이, 슬픔정서, 두려움 정서, 수치심 정서는 권장의 규칙이, 행복감 정서는 중용의 규칙이 기대되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노나 자만심은 자아-중심적 정서(Markus & Kiatyama, 1991)이고 사회-분리적 정서(Mastumoto, 2000)로서, 특히 분노는 지배, 권위, 독립의 신호를 보내는 사회조절적 특징(Jenkins & Ball, 2000)을 가지고 있어 집단의 유대나 결속, 상호의존성에 위해가 되는 정서이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슬픔이나 두려움 정서는 자기 책임으로 귀인하거나 복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사회조절적 특징(Jenkins & Ball)을 가진다. 그리고 수치심 정서는 타인-중심적 정서(Markus & Kiatyama, 1991)이고 사회-융합적 정서(Mastumoto, 2000)로서, 일차적 준거로 자아가 아닌 타인에 민감하게 하고, 타인의 관점이 되도록 하여 상호의존성

을 강화시키고 호혜적 교환을 촉진시켜서 상호의존적 자아의 정당화의 중요한 구실을 한다(Markus & Kiatyama, 1991). 따라서 이들 정서들에 대해서는 권장의 조절규칙이 기대된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분석에 나타난 정서조절방법으로는 앞선 연구(신양재, 2004b)에서 분노 정서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나타났는데, 특히 정서의 평가단계에서 분노의 강도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평가의 목적-유의미성<sup>9)</sup> 차원에서 나쁜 결과나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고, 평가의 원인<sup>10)</sup> 차원에서는 원인을 타인-귀인이 아닌 자기-귀인을 함으로써 분노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동경향성 단계에서의 조절방법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분노의 경우 표현하기에 앞서 먼저 이치를 따져서 일처리를 하라하여 분노 표현을 금지시키고 있고, 자만심 정서에서는 행동경향성 단계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만심 표현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범서류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과정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문헌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현재의 정서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 ■ 참고문헌

- 강희연, 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이동학회지*, 20(3), 171-182.  
김정민, 유안진(2003). 과제 난이도에 따른 4세와 7

9) Sherer(1999)의 연구에서는 goal significance의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10) Smith와 Ellsworth(1985)는 responsibility 개념으로, Roseman, Antoniou, Jose(1996)연구에서는 agency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 세 아동의 자부심과 수치심 표현. *아동학회지*, 24(6), 33-46.
- 문미옥, 류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4.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6.
- 성백효 譯註(1992). *童蒙先習 擊蒙要訣*.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성백효 譯註(1992). *明心寶鑑*.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성백효 譯註(1993). *小學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손인수(1993).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 신양재(2004a). 소학에 나타난 자아의 개념적 표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27.
- 신양재(2004b).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 *대한가정학회지* 심사중.
- 우남희(1999).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20(1), 3-14.
- 우수경, 최기영(200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 변인간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3(6), 15-32.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본 자녀양육-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점숙(1992). 조선시대 동몽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지*, 13, 113-128.
- 유홍렬 監修(1992). *한국사대사전*. 대구: 고려출판사.
- 이가원, 권오돈, 임창순 監修(1982). *한한대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이강이, 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지식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정덕, 송 순(1993).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57-168.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65-78.
-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동기와 정서조절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이희승 編著(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연진(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임희수,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순목(1983). *한국교육사상연구*. 서울: 집문당.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 홍희영, 이 영(2003). 정서유발맥락이 영아의 미소 얼굴표정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6), 15-31.
- 황혜정, 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39-151.
- Barrett, K. C. (1998). A functionalist perspective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s. In M.F. Mascolo, & S. Griffin(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pp. 109-133). NY: Plenum Press.
- Campos, J., Campos, R.,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Eid, M., & Diener, E. (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Inter-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81, 869-885.
- Fiedler, K., & Bless, H. (2000). The formation of beliefs at the interface of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N. H. Frijda, A. S. R. Manstead, & S. Bem(Eds.), *Emotions and beliefs: How feelings influence thoughts*(pp. 144-1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jda, N. H. (1993). The place of appraisal in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7, 357-387.
- Frijda, N. H., & Mesquita, B. (1998). The analysis of emotions: Dimensions of variation. In M. F. Mascolo, & S. Griffin(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pp. 273-295). NY: Plenum Press.
- Griffin, S., & Mascolo, M. F. (1998). On the nature, development, and functions of emotions. In M.F. Mascolo, & S. Griffin (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pp. 3-27). NY: Plenum Press.
- Jenkins, J. M., & Ball, S. (2000). Distinguishing between negative emotions: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ocial-regulatory aspects of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4, 261-282.
- Lewis, M. (1999). The role of the self in cognition and emotion.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pp. 125-142). NY: John Wiley & Sons.
- Lutz, C. (1987). Goals, events, and understanding in Ifaluk emotion theory. In D. Holland, & N. Quinn (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pp. 112-1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st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world, 2th. CA: Wadsworth.
- Mesquita, B., & Frijda, N. H. (1992). Cultural Variations in emotion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179-204.
- Oatley, K. (2000). The sentiments and beliefs of distributed cognition. In N. H. Frijda, A. S. R. Manstead, & S. Bem (Eds.), *Emotions and beliefs: How feelings influence thoughts*(pp. 78-1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man, I. J., Antoniou, A. A., & Jose, P. E. (1996). Appraisal determinants of emotions: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0, 241-277.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 Scherer, K. R. (1999). Appraisal theory.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pp. 637-663). NY: John Wiley & Sons.
- Smith, C. A., & Ellswell,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uper, C. M., & Harkness, S. (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 (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 34-47). NY: Routledge.
- Tangney, J. P. (1999).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pp. 541-568). NY: John Wiley & Sons.

(2004년 5월 29일 접수, 2004년 8월 18일 채택)